

## 한국식물병리학회

# 꾸준한 연구로 농산물 품질 향상

‘식물병리학’은 식물보호 또는 작물보호학의 한 분과이며, 주로 작물 보호를 위한 개념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일찍이 인류는 식물을 재배하여 먹거리(음식물)를 얻는 수단 하나를 이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식물의 안정적인 생산은 우리 삶에 중요 수단으로 중요시되었고, 더욱이 경쟁력이 있는 사회건설의 기본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대학에 식물보호 관련학과가 오래 전에 개설되어 식량생산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식량의 생산과 수급이 안정화 되었고, 우리나라도 학계와 정부의 주도로 시행한 녹색혁명의 달성으로 주곡인 쌀 생산이 자급되기에 이르렀다.

### 85년 창립 회원 7백50여명 활동

우리나라 다수의 학회 창립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병리, 곤충, 잡초, 농약분야에 종사하던 전문가들이 학회 창립을 서둘러 1962년 한국식물보호학회가 창립된 후 우리나라 작물보호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여 왔으며, 연간 2회에 걸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명실 공히 우리나라 식물보호분야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회원 수의 증가와 연구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1985년에 한국식물보호학회는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잡초학회, 농약학회 등으로 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학회는 국내의 학자와 연구자를 포함하여



朴元穆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

현재 회원이 7백50여명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여 명실 공히 국내 작물보호학술단체로서 그 내실과 기반이 튼튼할 뿐 아니라, 국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학회의 주요 활동은 매년 봄과 가을로 나누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동안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도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매년 국내 및 국

외에서 특별 연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치렀다.

이로 인하여 학문의 수준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연구의 성과를 잡지화 하여 정보를 나누어 공유함으로써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학회로 호평을 받고 있다.

회원의 구성은 농생물학, 생물학, 원예학, 농약학, 농학을 전공하는 전문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경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국제화시대에 발 맞추어, 학술지의 발간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는 연간 6회의 영문 학술지(The Plant Pathology Journal)를 발간하고, 연간 2회에 걸쳐서 「식물병 연구」라는 제목의 한국어판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문지의 발간 편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가 국제과학술지 인용목록(SCI)의 기준을 갖춘 학회로 성장하여 회원들의 의욕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만드

한국식물병리학회(www.society.kordic.re.kr)는  
 매년 봄과 가을에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연간 8회 발간하며  
 식물의 면역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농민생활의 안정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제1회 아시아 식물병리학회 참석(중국 북경 2000년 8월)

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러한 추진이 순조로운 상태로써 곧 국제적 면모를 갖춘 학회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학회업무도 전산화 되어, 발표논문 초록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회원 업무와 서비스도 원활하게 되었다.

### 아시아의 여러 협회와 협력

국제학회와의 협력도 순조로워 지난 해 아시아 식물병리학회 개최때 우리 학회와 회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점에서 학회 발전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앞으로 우리 학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더욱 연구에 매진하는 학술단체가 되기 위해서,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회상

을 제정하고 유능한 신진학자에게 학술상을 시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학회의 산하에 연구회를 두었는데, 즉, 바이러스 연구회 등은 자체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식물병리학분야에서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식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면역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는지?

환경친화형 보호체계는 어떻게 달성하겠는

지? 등에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리라 전망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농산물의 질적 향상은 물론 농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믿는다.

금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에서 개최되는 '식물병 예찰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Plant Disease Forecast)도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학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낼 것이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인류복지의 창달을 이루어 내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㉟